

##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이 선 화  
(중앙대)

### 1. 서론

챗GPT 열풍이 뜨겁다.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된 이래 40일 만에 가입자가 천만 명을 넘었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억 명을 돌파했다. 챗GPT란 Open AI사가 개발한 대형언어모델인 GPT<sup>1)</sup>를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으로 머신 러닝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여 마치 인간이 쓴 것과 유사한 수준의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김태원 2023: 3). 최근 들어 언론은 챗GPT의 등장이 많은 전문 직종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2021년만 해도 ‘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분석 보고서<sup>2)</sup>’에서 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는 고위험군 일자리가 아니었으나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챗GPT의 출현으로 인해 이들 직업은 오히려 가장 위협받는 직업군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 Open AI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가 최근에 실시한 공동 연구 조사에서도 곧 사

1) ‘생성형 사전학습 변환기’란 뜻으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

2) 한국표준직업분류(김수현 2021: 32)

라질 직업 순위에서 변호사와 회계사 다음으로 엔지니어, 번역가, 통역사 등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sup>3)</sup>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번역가는 미래 사회에 사라질 직업 중 하나로 항상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다.

필자가 챗GPT에게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TOP 5’를 질문해 본 결과, 챗GPT 역시 번역가를 3위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부연설명에서 문학작품의 번역의 경우는 문화적 맥락과 문학적 뉘앙스를 정확히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의 존재로 인해 번역가라고 하는 직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문학 작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인간의 개입 여지가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번역의 속도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가진 경쟁력은 인간이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학 번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손을 거치기만 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문학적인 뉘앙스나 문화적인 맥락 해석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개입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번역 작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게 교육 현장에서도 급속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 가능한 번역 전문가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석학들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번역 교육에 있어서도 챗GPT를 잘 다룰 수 있는 인재 양성 및 커리큘럼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고에서는 번역 교육 현장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학번역에 챗GPT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번역에서 챗GPT를 능숙하게 다루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번역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실감할 수 있다. 학습자는 번역에 적합한 프롬프트<sup>4)</sup> 작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번역 작업의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챗GPT의 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 비교를 통해 인공지능의 한계를 인지하면

3) 매일경제 기사 ‘기사 쓰고 작곡하고 PPT도…챗GPT 어디까지 써봤니’

4) 챗GPT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 입력하는 대화문

서 이때 필요한 번역사의 역할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번역과정에서의 인간 번역사의 바람직한 개입 형태를 모색하며,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셋째, 아무리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을 인간이 능숙하게 다룬다고 하더라도 번역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이다. 학습자는 챗GPT를 활용하여 번역을 수행한 이후에 제대로 번역이 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가 외국어 능력 및 번역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자에게 챗GPT를 통한 효율적인 번역 능력과 인간의 문학적 소양 및 외국어 감수 능력을 융합하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달함에 따라 번역의 많은 부분을 자동화에 의존하게 되면서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기계번역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흐름으로 나뉜다. 기계번역의 오류, 특히 문학번역에서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와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사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포스트에디팅 및 CAT 툴의 활용을 제안한 연구이다.

먼저, 기계번역의 성능을 평가하여 결과적으로 기계번역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는 2018년도 전후에 나온 연구가 주를 이룬다(마승혜 2018; 박옥수 2018; 서보현과 김순영 2018; 윤호숙 2018; 이미경 2019; 이준호 2019; 이선화·권익호 2020). 이들 연구에서는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 및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 2020년을 전후로 기계번역과 인간의 후처리 작업의 결합을 통해 기계와 인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스트에디팅의 활용 및 교육 방식을 고찰한 연구가 있다(이상빈 2017; 전해진 2019; 한현희 2019; 서보현과 김순영 2020; 광순례 2021; 윤애선과 손승희, 2022; 박혜선과 최진실 2023). 이에 더해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기계번역 활용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국내 학부 번역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론을 고찰한 이선우와 이상빈(2023)의 연구 결과는 기계번역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위 연구에서는 통번역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통해 학부 번역 전공자들은 기계번역 품질에 대체로 만족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은 기계번역이 번역 산업의 미래이므로 기계번역 교과과정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올바른 사용법 학습 방법과 기계번역과 공존하며 번역가로 일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실제로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능한 작업이라고 규정 짓고 기계번역의 능력 자체를 부정하기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무서우리만치 빠르다.<sup>5)</sup> 이제 번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정보 위주의 문서나 비문학 분야 자료의 경우는 정확성에서도 기계번역이 인간 번역사에 결코 뒤처지지 않을뿐더러 번역 속도 면에서는 비교 상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번역 단가의 경쟁력 면에서도 기계번역이 인간 번역사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입지에 있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번역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로 여전히 문학번역이 꼽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승혜(2017: 70-71)는 문학번역 시 요구되는 능력과 기계화될 가능성이 낮은 인간의 능력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문학번역이 쉽게 기계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이현경(2018: 194)도 가독성이나 설득적 효과 및 창조적 표현력이 요구되는 문학텍스트에서는 기계번역이 한계를 드러내고, 문장이 길지 않고 구조가 단순한 아동문학에서도 독자층을 겨냥한 장르적 관습을 기계번역은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또, 톨스토이의 소설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의 결과물을 비교한 전해진(2019: 113, 148)도 분석 결과에서 텍스트 분석 능력을 비롯하여 고도의 언어 수행 능력, 소통적 번역 능력, 맥락과 상황 이해 능력, 전략적 선택 능력 등 창의적 번역 능력과 감성이 요구되는 문학번역에서

5) News Value 기사 ‘AI인공지능 발전속도’

는 기계번역이 인간번역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마승혜(2018: 83-84)에서는 문학 작품은 복합적인 텍스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번역가의 해석 및 판단, 창의적 재현과 소통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기계번역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면서도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계를 활용하고, 기계번역의 역량이 미흡한 부분은 인간이 보완해나가는 상호작용 방식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고 있다. 일본 소설에 대한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을 고찰한 윤호숙(2018: 22)에서도 어휘, 문법, 문체, 오타자 등 많은 부분에서 기계번역이 여전히 미흡하므로 문학 작품의 기계번역은 현재의 기술로는 매우 어려우나, 속도 면에서는 인간번역의 한계가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기계번역을 사용한 후, 인간번역을 추가함으로써 훨씬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토랄, 안토니오와 앤디 웨이(Toral, Antonio and Andy Way 2015: 264)도 문학텍스트 분야의 번역에 있어서 절대표준(gold standard)이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계번역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면서도 최근 2년간 6% 적은 문자 편집의 개선을 보여 포스트에디팅이 용이해졌다고 한 바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의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과거 수십 년에 비해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의 기계번역 실력으로는 문학번역이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 속도라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예측은 사실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챗GPT의 성능과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학번역 작업에 있어 인간이 챗GPT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존의 기계번역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시급하다 하겠다.

## 2.2 챗GPT와 번역 교육

아직까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기계번역이나 챗GPT 사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느냐도 고민거리이다. 지나치게 기계번역에 의존하는 학습태도도 문제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인터넷 환경만 갖추어진 곳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용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교수가 감시할 수 없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스야마(臼山 2022: iii) 언어 교육, 특히 외국어 교육과 기계번역의 바람직한 공존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장성민(2023: 8)에서도 “실세계에서의 기술의 발달을 외면한 채 사용을 금지하거나 전통적인 교육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을 통해 언어 교육 내용이 학생들에게 유용하다고 느꼈을 때 학생들은 오히려 더 높은 학습동기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신동광, 정혜경, 이용상 2023: 175-176). 결과적으로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교육 모습은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학습의 효율을 높이면서 결과물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번역 교육에 사용할 인공지능 기술로 챗GPT에 주목하였다. 챗GPT를 활용하는 번역이 기계번역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챗GPT가 대화형 챗봇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챗GPT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 시스템이므로 높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 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어 대화에서 사람과 유사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질문에 최적화된 형태로 답변을 한다. 또 사용자의 질문이 논리적이고 구체적일수록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높은 완성도의 결과물을 산출해낸다. 김대식과 챗GPT(2023: 23)에서도 “GPT 모델은 매우 일관성 있고 유창하며 사람이 쓴 것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번역 등의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편 기계번역은 번역 작업을 실행했을 때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가 사용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원천텍스트(source text)를 기계번역이 번역하기 쉬운 형태로 수정하거나 번역 결과물을 사용자가 다시 하나하나 수정 및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원천텍스트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사용자의 손이 많이 가는 번거로움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박수정과 최은실(2023: 155)도 “기계번역은 에디팅 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챗GPT는 원문으로 번역 결과를 얻은 후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여 번역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기계번역과 챗GPT의 번역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앞으로의 번역 교육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서는 프라·포스트에디팅을 활용하는 기계번역 교육과 함께 특히 문학작품과 같이 기계번역의 한계가 큰 번역 분야에서는 챗GPT를 활용하여 정교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포스트에디팅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수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번역사 배출을 목표로 챗GPT 활용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고, 챗GPT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정교한 문학번역 실력을 갖춘 예비번역사 교육 방안 및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통번역학과 전공 수업에서 챗GPT를 활용한 번역 활동을 설계하고, 과제 수행을 통해 향후 번역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통번역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번역에 챗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소수의 통번역대학원 출신 전문번역사로는 갈수록 커지는 한국문학 번역 시장의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 통번역학 전공 학부생이 외국어 번역 스킬 경쟁에서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생의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으나 챗GPT를 활용함으로써 외국어 번역 스킬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면 개인이 지닌 문학적, 문화적 소양에 따라서는 전문번역사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번역사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번역 교육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학습자들이 챗GPT를 효율적으로 번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학부 출신 번역사 배출에 교육적 가치를 두고자 한다.

### 3. 챗GPT를 활용한 번역 과제 수행 사례

#### 3.1 과제 개요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챗GPT<sup>6)</sup>를 사용하여 소설 「82년생 김지영」<sup>7)</sup>의 일부를 번역

- 6) 챗GPT에는 최근에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GPT-4 모델이 출시되었으나 본 실험에는 학부생 번역자의 입장에서 가장 사용하기 쉽도록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무료버전인 챗GPT-3.5 기본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고, 프롬프트도 한국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챗GPT-3.5 모델은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에 최적화되어 있어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원하는 명령어 내용을 영어 텍스트로 번역

해보았다. 번역 과정을 통해 챗GPT의 효과적인 사용법을 도출하고, 기계번역과의 차별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챗GPT를 사용한 번역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제 참가자는 전공 과목 ‘일본어 통번역입문’ 수업을 수강하는 수도권 소재 K대학의 3학년과 4학년, 총 14명으로 구성하였다. 번역 과제로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지문을 제시하고, 총 2회에 걸쳐 번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챗GPT를 사용하여 주어진 지문을 일본어로 번역하되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챗GPT에게 수정을 지시하면서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에서는 첫 번째 과제와 동일한 지문을 번역하되 챗GPT에게 명령하는 프롬프트의 구체적인 조건을 교수자가 제시해준 후 이를 활용하여 각자가 재구성한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사용하여 번역을 수정하면서 일본어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요구하였다. 과제 수행을 위해 총 여섯 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진행 절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챗GPT를 활용한 번역 과제 진행 절차

구분	단계별 목표	세부 사항
1단계	인공지능과 번역 이론	인공지능의 기술적 발전 소개 번역 이론 수업
2단계	챗GPT의 번역 활용 검토	기계번역의 장단점 소개 기계번역을 사용한 번역 활동 시행 <sup>8)</sup> 챗GPT 사용 실습 번역에서의 챗GPT 활용 가능성 및 한계 검토

한 후 챗GPT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프롬프트의 작성을 통한 챗GPT의 퍼포먼스 개선 과정을 보는 것이므로 프롬프트 작성에 기계번역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은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 7) 『82년생 김지영』은 한국에서 현재까지 누적 판매 부수 120만 부 이상의 판매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며, 일본어 번역판은 2018년 발간된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지 『문예(文芸)』의 2019년 가을 특집호 『한국·페미니즘 일본(韓国·フェミニズム・日本)』 창간 이래 86년 만에 3쇄 증판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23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2022년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82년생 김지영은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 작품 중 하나로 2020년까지 10개 언어권에서 30만 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3단계	1차 번역 과제 시행	개별 과제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조건을 걸지 않고, 학습자가 자유로이 실행하도록 유도
4단계	1차 번역 결과 토의	1차 번역 결과물에 대한 리뷰 챗GPT 활용에 대한 1차 설문조사 실시 프롬프트 입력 조건 제안
5단계	2차 번역 과제 시행	개별 과제 프롬프트 입력 조건을 제시하여 설정된 조건을 포함한 형태로 완성도 높은 번역을 실행하도록 유도
6단계	2차 번역 결과 토의	1차 및 2차 결과의 차이점 검토 챗GPT 활용에 대한 2차 설문조사 실시

1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기술적 발전 현황에 대한 설명과 번역 이론 수업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인공지능 번역으로 대표되는 기계번역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에서 실제로 기계번역을 사용해 보았다. 학생들 모두가 이미 기계번역 사용 경험이 있었으므로 기계번역 사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주로 나타나는 오류 및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챗GPT 사용 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챗GPT 접속 및 사용법을 알려주고 간단한 번역 작업을 시연해보았다. 그다음 단계에서 학생들은 첫 번째 개별 번역 과제를 수행하고, 교수자는 프롬프트 입력을 5회 이상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제 수행 결과가 나온 4단계에서는 수행 결과를 공유하고 챗GPT 활용에 대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 요구하는 2차 번역 과제 시행 목표가 ‘인간번역과 유사한 수준의 완성도 높은 번역물 생성’인 것을 감안하여 전략적인 프롬프트 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교수자가 최소한의 프롬프트 입력 조건을 제시하였다. 5단계에서 두 번째 번역 과제를 시행하였고, 6단계에서는 번역 결과를 공유하고 1차 번역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번역에 챗GPT를 활용한 결과에 대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챗GPT의 활용 가치를 인식하고 문제점 및 한계, 나아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챗GPT가 번

8) 기계번역을 사용한 번역 활동에는 기계번역의 문맥 판단 능력을 고찰한 김한식(2022: 121, 123)에서 사용한 기사를 일부 발췌하여 수업에 활용하였다.

역한 결과물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어떤 인공지능을 번역의 도구로 사용하건 모국어는 물론이고 탄탄한 외국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3.2 과제 수행 결과 분석

조우호(2002: 250)는 문학 작품의 번역 행위를 ‘언어와 문학의 형식뿐 아니라 문화의 형식을 옮기는 작업’이라고 표현했고, 박진임(2004: 108)도 번역자는 문학을 탄생시킨 문화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 문화 자체의 번역으로 연장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학 작품 번역에서의 핵심은 문화적 요소라는 사실을 볼 때 번역 실험에서 과제 수행자가 문화적 요소 번역에 대해 챗 GPT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챗GPT는 이를 반영하여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82년생 김지영」에서 문화적 요소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지문을 소설의 전반부에서 총 네 파트로 나누어 발췌하였고, 해당 지문은 다음과 같다.<sup>9)</sup>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 3년 전 결혼해 지난해에 딸을 낳았다. 세 살 많은 남편 정대현 씨, 딸 정지원 양과 변두리의 한 대단지 아파트 24평형에 전세로 거주한다. 정대현 씨는 IT 계열의 중견 기업에 다니고, 김지영 씨는 작은 홍보대행사에 다니다 출산과 동시에 퇴사했다. 정대현 씨는 밤 12시가 다 되어 퇴근하고, 주말에도 하루 정도는 출근한다. 시댁은 부산이고,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김지영 씨가 딸의 육아를 전담한다. 정지원 양은 돌이 막 지난 여름부터 단지 내 1층 가정형 어린이집에 오전시간 동안 다닌다.

(중략)

김지영 씨는 점심 설거지를 해 놓고 커피를 한잔하며 잠깐 쉬다가 시아머니와 함께 추석 음식 재료를 사러 시장에 다녀왔다. 저녁부터는 시골을 우리고, 갈비를 재고, 나물 재료를 손질해 테처 일부는 무치고 일부는 냉

9) 짧은 지문을 번역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의미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경제적인 번역 속도와 대화를 통해 인간의 개입 여지가 있는 챗GPT의 특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길이갑(공백을 포함하여 총 1,177자로 원고지 200자 기준 6.6장)으로 설정하였다.

동실에 넣어 두고, 전과 튀김을 만들 채소와 해산물들을 씻어 정리해 두고, 저녁 밥을 차리고 먹고 치웠다.

다음 날, 김지영 씨와 정대현 씨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고, 튀김을 튀기고, 갈비를 찌고, 송편을 빚고, 중간중간 밥을 차렸다. 가족들은 막 만들어진 명절 음식들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지영 양도 낯을 가리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넉죽넉죽 안겨 애교를 부려 사랑을 듬뿍 받았다.

(중략)

“아이고 사부인, 사실 우리 지영이 명절마다 몸살이에요.”

잠시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거대한 빙하 위에 온 가족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정수현 씨가 길게 한숨을 쉬었는데 찬 입김이 나와 하얗게 흩어졌다.

(중략)

“지원 에미, 지금 이게 무슨 짓이나? 어른들 앞에서 뭐하는 짓이야? 대현이랑 수현이랑 우리 가족 다 같이 얼굴 보는 게 1년에 몇 번이나 된다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불만이나? 그랬어?”

“아버지, 그런 거 아니예요.”

정대현 씨가 일단 나섰지만, 정대현 씨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김지영 씨가 정대현 씨를 밀어내며 차분히 말했다.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삼 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 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결국 정대현 씨가 아내의 입을 틀어막아 끌고 나갔다.

위 지문에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챗GPT가 단번에 번역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적 요소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들 문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프롬프트를 어떻게 수정하면서 챗GPT에게 번역을 지시하였고, 챗GPT는 이를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3.2.1 1차 번역 과제 결과

1차 번역 과제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지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챗GPT를 이용하여 아래 한국어 원문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명령어와 번역물을 답안제출 파일에 옮겨서 제출하기

<수행 조건>

1. 챗GPT-3.5 버전을 사용할 것. <https://openai.com/blog/chatgpt>
2. 챗GPT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는 한국어로 할 것
3. 챗GPT에게 한 번의 명령으로 번역을 수행시키는 것으로는 번역물의 완성도가 높을 수가 없으므로 최소 5회 이상 명령을 내려서 번역물의 완성도를 높일 것
4.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할 것

아래 <표 2>는 교수자의 지시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례 중 하나이다. 아래 사례를 토대로 하여 전체 학생들의 과제 수행과정과 챗GPT의 번역 결과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1차 과제 수행 사례\_학생 1

no.	프롬프트 내용
1	안녕. 반가워. 이제부터 너는 한국어 문학을 일본어 문학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번역가야. 내가 원문의 일부를 줄테니 번역작업을 해줘.(이하 원문 스크랩)
2	잘했어. 하지만 교정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많아. 첫째로 어미가 이상해. 한국어에서는 반말인 부분이 일본어 번역은 전부 です, ます형으로 적혀있어서 이상하게 느껴져. 둘째로 번역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많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서른네 살이라는 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33살이나 32살로 고쳐줘야해. 또 갈비를 재고, 나물 재료를 손질해 데쳐, 사골을 우리고, 지원에미 등등 이상한 부분이 너무 많아.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다시 생각하고 일본어로 번역한 결과를 보여줘.
3	잘 고쳐줬어. 하지만 여전히 틀린 부분이 많아. 조금 더 교정을 부탁할게. 첫째로 봉돌이 지구라는 표현은 틀렸어. 처음 내가 준 원문을 보면 변두리라는 표현이 있어. 이걸 생각하고 다시 고쳐줘. 둘째로 여전히 음식을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 어색해. ‘사골을 우리고’라는 표현과 ‘나물 재료를 손질해 데쳐, 일부는 무치고, 일부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라는 부분도 다시 생각하고 교정해줘. 그리고 ‘전을 부치고, 튀김을 튀기고’도 고쳐줘. 전은 일본의 찌지미와 같고 튀김은 덴뿌라와 같아. 다시 교정해서 일본어로 번역한걸 보여줄래?
4	너무 잘 고쳐줬어. 이제는 이 작품의 문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 작품에서 「」사이에 들어간 글들을 “대사” 라고 해. 대사가 아닌 부분들을 “서술”이라고 해. 서술부분은 작가가 독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です, ます형은 이상해. 보통체 과거형으로 바뀌면 좋겠어. 다시 생각하고 일본어로 번역한 결과를 보여줘.

5	<p>고쳐진 부분이 있어서 너무 기뻐! 근데 수정된 부분은 적고 거의 그대로 내려왔다는게 충격적이네. 그리고 잘 적어뒀던 부분은 왜 갑자기 다른 표현으로 바꾼건지 모르겠다. 이전 번역에서 썼던 단어는 유지해줬으면 좋겠어. 종결어미만 수정하고 단어는 秋の食材이라는 단어만 수정해서 보여줘. 가을재료가 아니라 추석음식이야.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서 다른 단어로 대체해줘.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한걸 일본어로 보여줘.</p>
---	--

1차 과제 점검 결과,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첫 번째 명령으로 ‘이 글을 일본어로 번역해줘’ 혹은 ‘이하의 글을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해줘’ 등 챗GPT에게 주어진 지문을 번역하도록 단순 지시를 내렸다. 이에 반해 학생 1은 챗GPT에게 ‘번역가’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하면서 번역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다.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자와 일관된 대화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의 범위 내에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김대식과 챗GPT 2023: 23)는 점에서 첫 대화에서 챗GPT에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흥미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학생 1 외에도 3명의 학생이 “너는 번역가야. 소설 <82년생 김지영>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해줘.”, “ChatGPT. 너는 지금부터 나의 번역가야. 다음의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해줘.”와 같이 챗GPT가 맡은 임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챗GPT에게 역할을 부여했을 때의 번역 결과와 단순히 번역만 요구했을 때의 번역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다면 챗GPT에게 유연성 있게 지시를 내려도 무방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두 번째 프롬프트에서는 먼저 서술어의 형태를 높임말에서 낮춤말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학생의 챗GPT의 첫 번째 번역 결과로 일본어의 서술어가 높임말로 처리되어 있었다. 제시한 지문에 대해 일본어 번역을 요구했을 때 예를 들어 첫 두 문장에서 ‘キム・ジヨンさんは... 34歳です。...娘を出産しました。10)’와 같이 챗GPT는 서술어를 ‘です’와 ‘しました’로 소설의 원천 텍스트와는 달리 높임말로 처리하였다. 이에 대해 실험 참가자 14명 중 6명이 두 번째 프롬프트(3명)와 세 번째 프롬프트(3명)에서 낮춤말로 수정을 요구하였

10) 학생 1의 제출 번역. 한국어로 해석하면 ‘김지영 씨는... 34살입니다. ...딸을 출산하였습니다.’이다.

다. 기계번역을 사용한 결과로 번역한 모든 문장의 서술어가 높임말로 되어 있어 이를 낮춤말로 수정해야 할 때에는 인간이 번역 결과물을 하나하나 수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챗GP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의 명령으로 일괄 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예로 원천텍스트 ‘김지영 씨는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 부분의 오역이다. 이 문장을 챗GPT는 ‘キム・ジョンさんは私たちと同じ年で、34歳です。11)’로 번역하고 있다. 같은 문장을 파파고 번역과 구글 번역, DeepL번역<sup>12)</sup>을 사용해 본 결과, 각각 ‘キム・ジョンさんは私たちの年で34歳だ。’(파파고 번역), ‘キム・ジョンは私たちの年齢で30歳です。’(구글 번역), ‘キム・ジョンさんは私たちの年齢で三十四歳です。’(DeepL번역)로 번역하였다.<sup>13)</sup> ‘우리 나이로’가 의미하는 바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를 뜻하는 말이나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무료 버전은 모두 ‘우리의 나이로’로 오역하였으며, 구글 번역은 ‘서른네 살’을 ‘30歳’로 숫자 번역에서도 오류를 범하였다. 이에 대해 6명의 학생이 챗GPT에게 오역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고로 인간번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 출판된 번역판 『82年生まれ、キム・ジョン』<sup>14)</sup>에서는 ‘キム・ジョン氏、三十三歳。’로 번역되어 있다. 이를 직역하면 ‘김지영 씨, 서른세 살.’이다. 원천텍스트에서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표현된 것을 일본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간결하게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기계번역과 챗GPT의 데이터로는 특정 언어권의 구어적 요소나 맥락적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

11) 직역하면 ‘김지영 씨는 우리와 같은 나이로 34살이다.’이다.

12) 정확한 명칭은 ‘DeepL Translator’로 독일의 기업 DeepL사가 개발하고 2017년에 출시한 번역 서비스 플랫폼이다. 기존의 구글, 파파고 번역 시스템보다 더 매끄럽고 정확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 지원은 2023년 1월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출처: Tokenpost 2023년 7월 5일 기사 ‘자민당과 5월 만났던 독일 인공지능사 DeepL, 일본 법인 설립’).

13) 각각의 일본어 문장을 한국어로 해석하면 ‘김지영 씨는 우리들의 나이로 34살이다’(파파고 번역), ‘김지영 씨는 우리들의 연령으로 34살이다’(구글 번역), ‘김지영 씨는 우리들의 연령으로 34살이다’(DeepL번역)이다. 구글 번역과 DeepL번역의 차이점은 ‘서른네 (살)’을 구글 번역은 아라비아 숫자로, DeepL번역은 한자로 표현한 점이다.

14) 斎藤 真理子訳, 2018, 筑摩書房

아 여전히 인간의 손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문화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나물, 전, 사골 등의 한국 고유의 음식명을 챗GPT가 각각 ‘野菜’, ‘餅’, ‘ソゲ’로 오역하는 것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생 1 외에도 5명의 학생이 수정할 것을 프롬프트에 반영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개별 단어 레벨에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챗GPT에게 수정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인간이 가장 적절한 어휘로 단번에 수정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천텍스트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자가 번역할 외국어의 원어민 수준만큼 어휘량이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서는 인간이 직접 번역하거나 기계번역의 오류를 수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챗GPT의 장점은 부연 설명을 통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다 적절한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학생 1에서 아쉬운 점은 프롬프트 1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번역 결과물을 보아도 지시가 과도하게 복잡했을 때 챗GPT가 이를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수정과 최은실(2023: 156)에서도 챗GPT에게 주어진 정보량이 많을 경우 이전에 제시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오역을 하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챗GPT에게 지시를 내릴 때에는 불필요한 추가 정보 없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문장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한 번에 하나의 지시를 내리면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사용으로 번역물의 완성도를 높인 사례이다.

〈표 3〉 1차 과제 수행 사례\_학생 2

no.	프롬프트 내용
1	Chat GPT! 너는 지금 번역가야. 이 한국어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해줄래?
2	고마워!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가타카나로 수정해서 다시 번역해줄래?
3	고마워! 하지만 한국어 원문에서 ‘우리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라는 문장은 ‘한국 나이로 서른네 살이다.’라는 의미야.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번역해줄래?
4	고마워! 한국어 원문에서 ‘친정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시기 때문에’라는 문장에서 식당을 레스토랑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느껴져서 레스토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일본어로 다시 번역해줄래?
5	고마워! 한국어 원문에서 중략은 ‘글이나 말의 중간 일부를 줄임.’이라는 의미야. 이 부분을 수정해서 생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줄래?

6	고마워! 한국어 원문에서 ‘추석 음식 재료들을 사러 시장에 다녀왔다.’라는 문장 속 ‘추석’은 한국 대표적 명절 중 하나로 일본에서는 秋夕라고 해.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번역해줄래?
7	고마워! 한국어 원문에서 ‘전을 부치고’라는 말은 ‘전’이라는 음식을 ‘부치다’라는 의미야. 이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줄래?
8	고마워! 한국어 원문에서 ‘따님’은 ‘딸’을 높이는 말이야. 이 의미에 맞게 일본어로 다시 번역해줄래?
(이하, 생략) <sup>15)</sup>	

학생 2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으며, 각각의 프롬프트에서 수정이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 내용은 챗GPT의 번역 결과물에도 잘 반영되어 있어 학생 1이 <표 2>의 5번 내용에서 ‘근데 수정된 부분은 적고 거의 그대로 내려왔다’와 같이 언급한 오류가 학생 2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프롬프트 내용도 거의 모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14명의 학생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번역물을 제출하였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학생 1, 학생 2와 같이 적절한 프롬프트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아래의 학생 3과 같이 포괄적이고, 소극적인 프롬프트 구성으로 챗GPT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표 4> 1차 과제 수행 사례\_학생 3

no.	프롬프트 내용
1	아래 지문을 일본어로 번역해줘.
2	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고쳐줘.
3	주술 관계를 명확히 해줘.
4	반복되는 주어나 서술어를 자연스럽게 다듬어줘.
5	일본어 문법적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고 고쳐줘.

이 경우 챗GPT의 번역 결과물도 기계번역을 한 번 사용한 결과와 다르지 않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였다. 또한,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고치도록 하거나 주술 관계를 명확히 하라고 하는 등의 프롬프트로는 앞의 번역 결과물과 별다른

15) 학생 2는 총 11개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으며, <표 3>에서 생략한 프롬프트에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씩 지적하였다.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학생 3의 과제에서는 과제 수행도와 번역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를 통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번역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설계한 수업의 4단계에서는 학생들의 1차 번역 결과물에 대한 리뷰와 함께 챗GPT 활용에 대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2차 과제 시에 입력할 구체적인 프롬프트의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 3.2.2 2차 번역 과제 결과

작문 교육에 챗GPT 활용을 시도한 장성민(2023: 11)에서는 챗GPT 사용자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과제의 목적과 요구에 부합한 정보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고 서술한다. 이를 위해 프롬프트에는 작문의 목적과 글의 유형, 예상 독자, 내용 조직 방법, 표현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생들이 기존의 작문수업에서 글쓰기의 어려움 및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건의문의 독자는 학교 국어 선생님이다. 해결 방안으로 제안되는 학교 국어 수업은 글쓰기의 즐거움과 자신감을 얻고, 글쓰기에 대한 동기와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글을 쓰는 평생 필자를 기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기존 수업 방식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으로서의 어려움을 사례로 제시하고, 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이 두드러지도록 작성하려고 한다. 근거를 제시할 때에는 통계 자료를 활용한다.”와 같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투입할 수 있다(장성민 2023: 12)고 제안한다.

아래는 본 연구의 2차 번역 과제에서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지시한 사항이다. 2차 과제에서는 1차 번역 과제 점검에서 학생들에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장성민(2023)의 프롬프트 작성 사례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수행 조건>을 프롬프트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를 통해 챗GPT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면서 특히 문학 번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힌트가 되는 도움말을 제시함으로써 챗GPT의 번역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챗GPT를 이용하여 아래 한국어 원문 텍스트를 일본어로 번역하기. 명령어와 번역물을 답안제출 파일에 옮겨서 제출하기

<수행 조건>

1. 챗GPT-3.5 버전을 사용할 것. <https://openai.com/blog/chatgpt>
2. 챗GPT에게 명령을 내리는 언어는 한국어로 할 것
3. 챗GPT의 모든 답변에 번역문 전체가 들어가도록 할 것
4. 두 번째 답변(번역문)부터는 앞의 답변에 대하여 달라진 부분을 빨간색 글씨로 표시할 것
5. 챗GPT에게 지시하는 프롬프트에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되 지시는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내릴 것
  - ① 글의 유형
  - ② 예상 독자
  - ③ 표현 전략: 장르(소설), 문화의 차이, 독자(일본인)의 이해도, 해당 언어(일본어) 문장 표기 원칙 등
  - ④ 번역 전략: 문체, 가독성, 고유명사 처리, 문화 요소, 호칭어, 인물 대사 처리(대사를 하는 인물의 가족 관계상의 위치를 반영한 언어 사용법 반영) 등
6. 질문의 횟수에 제한 없음. 번역의 목적은 번역물의 완성도 높이기
7. 번역물은 반드시 챗GPT가 수정하도록 하여야 함
8.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한 후 설문조사에 응할 것

2차 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행 조건을 잘 지켜서 챗GPT에게 지시를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챗GPT에게 (1)수행 미션이 일본어 번역이라고 하는 점, (2)글의 유형이 소설이고, 이를 일본에서 출간한다는 점, (3)예상 독자는 20대 젊은 여성이라는 점, (4)한국 문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4)고유명사의 표기 원칙을 명시한 점 등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 한 학생은 첫 프롬프트에서 ‘한국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싶어, 너가 능력 있는 번역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줄 수 있겠니?’라며 챗GPT에게 역으로 질문을 함으로써 챗GPT가 스스로 번역 시 주의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도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에 대해 챗GPT는 ‘물론입니다! 일본어로 한국 소설을 번역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번역 작업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라고 대답하며 ‘언어 이해와 문화 이해, 목표 독자층 고려, 어휘와 문체 선택, 문장 구조와 문법, 문화

차이와 관용구, 편집과 교정'의 총 여섯 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각각의 항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김대식과 챗GPT(2023: 23)가 GPT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 세트를 학습하고, 학습한 언어 모델은 주어진 프롬프트로부터 텍스트를 생성하기 시작하여 그다음 생성된 단어를 기초로 다음 단어를 반복해서 예측하는 구조라고 설명한 것에서 볼 때 위와 같이 챗GPT에게 주의점을 환기시킨 후 번역을 하도록 하는 접근방식도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차 과제에서 학생들은 대부분이 1차 과제보다 2배 수 이상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학생들에게 프롬프트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교수자가 제시한 수행 조건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1차 과제에서는 챗GPT 사용이 미숙했다.',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2차 과제에서는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서 번역 완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실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학생들의 과제 수행도보다는 챗GPT의 번역 실력과 프롬프트에 대한 이해도 및 반영 능력이었다. 챗GPT는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과 다양한 언어 지원, 대화 형식의 인터페이스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sup>16)</sup>하면서도 일본어 번역 실력은 기존의 기계번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입력한 프롬프트를 잘 반영할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여 결과물을 생성해냈다가도 그다음 프롬프트에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값에서 이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직전의 요구사항만 수렴된 결과를 나타내는 오류가 다발했다. 예를 들어 1차 과제에서 높임말을 낮춤말로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다음 프롬프트에서 호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면 호칭을 수정한 번역 결과물의 서술어가 직전의 낮춤말에서 다시 높임말로 바뀌어 있었다. <표 2>의 사례를 보더라도 2번 프롬프트에서 서술어 수정을 요청했음에도 다시 4번 프롬프트에서 동일한 수정을 요청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또, 프롬프트 5번에서도 '잘 적어줬던 부분은 왜 갑자기 다른 표현으로 바꾼 건지 모르겠다. 이전 번역에서 썼던 단어는 유지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차 과제

16) 필자가 챗GPT에게 "챗GPT3.5 버전의 성능과 특징을 말해줄래?"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챗GPT의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였다(챗GPT 사용일: 2023.07.28.).

에서 한 학생이 프롬프트를 40개나 작성하여 이유를 물었더니 앞서 요구한 수정사항이 원복되고 직전의 요구사항만 반영되는 것을 보고 끈질기게 수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특히 높임말을 낮춤말로 지시한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만으로는 그 원인을 특정지을 수 없으나 한국어 버전과 일본어 버전의 챗GPT의 대답이 기본적으로 높임말로 출력되는 것을 감안할 때 챗GPT가 생성하는 두 언어의 문장은 높임말에 최적화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7)</sup>

인상 깊었던 과제는 높임말로 출력된 서술어를 낮춤말로 수정을 요구한 13명의 학생 중 한 명의 학생의 프롬프트 작성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전반부에 챗GPT에게 서술어 수정을 요구하였던 것에 비해 해당 학생은 내용 및 어휘 등에 대한 수정을 먼저 요구한 후 가장 마지막 프롬프트인 스무 번째 지시에서 “고마워! 이제 마지막이야. 이 일본어 원문의 큰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들을 제외한 모든 문장을 반말로 바꿔줄 수 있어? 일본어로!”라고 지시하였다. 실제로 이 학생의 번역 품질이 가장 좋았던 것으로 볼 때 2차 과제에서 위에서 나타난 오류를 잡기 위한 재수정을 요구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프롬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프롬프트에서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프롬프트 지시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미시적 수정’에서 ‘거시적 수정’의 순서가 번역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많은 데이터 축적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한 수업의 마지막 6단계에서는 학생들의 2차 번역 결과물에 대한 리뷰와 함께 1차 및 2차 결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챗GPT 활용에 대한 2차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구체적인 수행 조건을 부여했을 때 챗GPT의 번역 품질이 더 만족스러웠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실제로 과제 결과물에서도 번역의 품질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7) 이에 대해 필자는 시험 삼아 챗GPT-4 버전에서 동일한 작업을 해보았더니 상위 버전인 챗GPT-4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챗GPT-4는 현재 유료 버전이며, 이를 무료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 포털 사이트 등에 몇 가지 소개되어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고 후속 연구로 계획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 3.2.3 챗GPT 활용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두 차례에 걸친 과제 종료 후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학생들은 질문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주관식으로 답하였다.

〈표 5〉 설문조사 질문 내용

1차 과제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1	본 과제를 챗GPT 사용일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2	이전에 제출자가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은?
3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챗GPT의 장점은?
4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챗GPT의 단점은?
5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기계번역(파파고, 구글 등)과 챗GPT의 차이점은?
6	앞으로 번역을 할 때 기계번역기 대신 챗GPT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가?
2차 과제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1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챗GPT의 장점은?
2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챗GPT의 단점은?
3	앞으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는가? · 첫 번째 과제 수행 후 생각: · 두 번째 과제 수행 후 생각:

먼저, 1차 과제 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챗GPT의 장점에 대하여 (1) 쉽고 빠르게 단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인간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다, (3) 여러 번 명령할수록 보다 정교한 완성물이 만들어진다, (4) 문장 수정을 요청했을 때, 수정한 내용과 더불어 그렇게 수정하게 된 근거까지 같이 제시해준다, (5)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단점으로는 (1)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2) 여러 번 수정을 거칠 경우 이전의 수정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가 생긴다, (3) 번역해야 할 양이 많으면 뒤로 갈수록 요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4) 명령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다, (5) 일본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한국어 문장을 생성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번역에 구체적인 수행 조건을 부여한 2차 과제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조사 때의 장점 외에도 (1) 일단 역할을 부여하면 그에 맞게 문체를 설정하고, 독

자를 의식하여 번역작업을 한다, (2) 번역 결과가 불완전하다면 명령문을 통해 피드백을 하며 결과를 몇 번이고 개선시킬 수 있다, (3) 모든 과정이 사용자 계정에 저장되므로 중간에 작업을 중단해도 어떤 기기로나 언제 어디서나 이어서 수정 또는 확인이 가능하다, (4) 작업 중 필요한 정보가 있을 경우 챗GPT에게 질문해서 바로 찾을 수 있다 등을 꼽았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1) 확실한 명령이 없으면 다음 질문에서 전에 명령했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점이 매우 번거로웠다, (2) 문화적 차이에 대한 번역의 품질은 그리 좋지 못하다, (3) 지시한 내용을 빠트리는 경우가 많았다, (4) 지시문이 길어질수록 정확한 전달이 어렵다, (5) 질문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등의 의견이었다.

이 밖에도 ‘챗GPT가 잘 번역하지 못하는 점을 찾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언어 능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혼자 번역했다면 사용하지 못했을 다양한 어휘를 챗GPT가 구사해주어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었다’, ‘문학 번역에서는 아직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번역가의 미래가 어둡지 않다고 느꼈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번역을 할 때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1차 과제 후에는 챗GPT:기계번역:인간번역이 5:7:5로 기계번역이 가장 많았고, 2차 과제 후에는 4:5:8로 인간번역이 가장 많았다.<sup>18)</sup> 그러나 각 항목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변별력이 있는 의견으로는 좁히지 못했다.

위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결론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의 문학번역 실력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본고는 챗GPT의 번역 스킬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챗GPT를 번역사가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기계번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문학번역의 가능성을 도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전 세계가 챗GPT의 발전과 활용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챗GPT를 활용한 번역 교육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 중복 선택을 포함한 숫자이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예비번역사 배출을 목표로 통번역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챗GPT를 활용한 번역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챗GPT는 대형 언어 모델 GPT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가 사전 학습되어 있으며, 단순 질의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논리적이고 정교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인공지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챗GPT가 기계번역과 달리 연속적인 프롬프트 사용으로 인간의 손을 적게 거치고도 오류를 수정시킬 수 있어 문화적인 요소가 많고, 텍스트가 긴 문학 번역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번역 교육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설계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에서는 통번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챗GPT를 사용하여 소설 『1982년생 김지영』의 일부를 번역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1차와 2차에 걸친 과제 실험 결과에서 챗GPT를 활용하여 번역을 했을 때 쉽고 빠르게 단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번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명령문으로 결과를 몇 번이고 개선시킬 수 있으며, 중간에 작업을 중단해도 사용 기기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어서 수정 또는 확인이 가능하다 등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전 지시를 반복하고, 문화적인 요소에서 오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오류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김태원(2023: 5)에서 챗GPT의 한계로 답변하는 정보가 다른 정보와 충돌하거나 질문 유형을 잘못 판단하면 오답을 생성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차 과제를 통해 프롬프트 작성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결과, 번역의 완성도가 1차 과제 때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확인한 것은 인간과 인공지능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대화를 통한 수정 범위의 확장성, 정보의 다양성, 조작과 저장의 편의성 등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도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태원(2023: 9)이 미래 세대에게는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다루는가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한 것을 번역 교육에 빚대어 말하자면,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에 경쟁력 있는 번역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챗GPT에게 번역을

더 잘 시키기 위한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통해 얻은 번역에 필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첫째, 프롬프트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것, 둘째,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 셋째, 미시적 요소에서 거시적 요소의 순서로 수정 지시를 내릴 것, 넷째, 연속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경우 번역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할 것, 다섯째, 한번에 번역할 지문이 너무 많지 않도록 양을 적절하게 나눌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능력에는 탄탄한 모국어 및 외국어 능력, 각 언어권 문화에 대한 이해력 및 재표현 능력이 토대로 깔려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번역을 전공하지 않고도 번역업계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번역 전공자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길은 번역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구성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도 더욱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외국어 학습과 번역 학습에도 충실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번역 결과물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이 ‘챗GPT가 잘 번역하지 못하는 점을 찾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언어 능력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 것에서 챗GPT를 활용한 번역 교육이 외국어 및 번역 학습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의 번역 교육과 챗GPT 활용 교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간다면 학부 교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미래세대 번역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한국문학번역원이 개최한 번역교육 심포지엄<sup>19)</sup>에서 네이버클라우드 파파고 신중휘 이사는 “아직은 챗GPT의 번역은 기계번역 전용이 아니므로 원문의 의미를 생략하거나 없는 의미를 과생성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무엇보다 번역 결과의 유창성은 기존 기계번역보다 챗GPT가 더 우수하다.”고 한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번역 분야에서의 챗GPT의 활약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번역 교육에 있어서의 챗GPT의 활용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한 실험으로는 분석 결과

19) 「AI번역 현황과 문학번역의 미래」 2023.05.26.



및 번역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도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번역에 사용한 문학작품 지문 외에도 텍스트의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고, 한국어가 도착어일 경우의 챗GPT의 성능 및 실험 대상의 확대 등 양적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를 추가 보완하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순례 (2021) 「아랍어-한국어 기계번역에 관한 고찰 - 비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25(1): 55-87.
- 김대식, 챗GPT (2023)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 서울: 동아시아.
- 김태원 (2023)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시대, 미래 모습과 대응 방안」, 『Future Horizon』 55: 2-9.
- 김수현 (2021) 「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가능성 분석」, 『고용이슈』 2021 가을호: 26-45.
- 김한식(2022) 「기계번역의 문맥 판단 능력 분석 - 동음이의어 번역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132: 119-134.
- 이준호 (2019) 「문학번역 적용을 위한 기계번역의 현주소」, 『통번역학연구』 23(1): 143-167.
- 마승혜 (2017) 「기계화되기 어려운 인간 능력과 문학번역 능력 비교·고찰 및 논의」, 『통번역학연구』 21(3): 55-77.
- 마승혜 (2018) 「문학작품 기계번역의 한계에 대한 상세 고찰」, 『통번역학연구』 22(3): 65-88.
- 박수정, 최은실 (2023) 「챗GPT의 아이러니 번역 활용 가능성 고찰」, 『번역학연구』 24(2): 131-160.
- 박옥수 (2018) 「원천언어의 관점에서 살펴본 기계번역의 오류분석과 수정 원칙: 비문학 텍스트의 통사적 특징에 근거해서」, 『동아인문학』 44: 151-171.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 박혜선, 최진실 (2023) 「학부 교양영어 수업에서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사용자 인식과 오류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1): 71-107.
-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 서보현, 김순영 (2020) 「번역사의 번역교육 경험이 포스트에디팅 결과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1(3): 63-91.
- 신동광, 정혜경, 이용상 (2023) 「내용중심 영어 교수 학습의 도구로서 ChatGPT의 활용 가능성 탐색」, 『영어교과교육』 22(1): 171-192.
- 윤애선, 손승희 (2022) 「구글이 소설도 번역할 수 있나요? - 문학 텍스트에 적용한 프→한 기계번역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 『불어불문학연구』 131: 273-306.
- 윤호숙 (2018) 「일한기계번역의 오류유형에 관한 고찰 - 일본소설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07(1): 3-25.
- 이미경 (2019) 「기계번역 vs. 인간번역, 텍스트 모호성 해소를 위한 전략 고찰 - 연설문 번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687-700.
- 이상빈 (2017) 「학부번역전공자의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통역과 번역』 19(3): 37-64.
- 이선우, 이상빈 (2023) 「기계번역 사용, 기계번역 교육, 번역가 진로에 관한 인식 조사: 학부번역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통역과 번역』 25(1): 49-73.
- 이선화, 권익호 (2020) 「기계번역의 한계와 번역사의 전략 - 유엔 총회 한-일 정상 연설문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5: 109-128.
- 장성민 (2023) 「챗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 - 인공지능 시대, 작문교육의 대응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56: 7-34.
- 전혜진 (2019) 「AI 시대, 문학번역에서 기계번역과 인간번역 비교분석 연구: 톨스토이의 『유년시절』 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1(1): 111-154.
- 조남주 (2016) 『1982년생 김지영』, 서울: 민음사.
- 조우호 (2002) 「문학담론의 문화적 코드화로서의 문학 번역 - 18세기 독일문학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괴테연구』 14: 233-254.

- 한현희 (2019) 「노한 기계번역의 프리에디팅(pre-editing) 및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가이드라인 제안」, 『노어노문학』 31(4): 65-96.
- Toral, Antonio and Andy Way (2015) ‘Machine-assisted Translation of Literary Text: A Case Study’, *Translation Spaces* 4(2): 240-267.
- 白山利信 [Usuyama, Toshinobu] (2022) 「<巻頭エッセイ>機械翻訳と言語教育」, 『外国語教育論集』 44: i-vi.
- 宮田玲, 藤田篤 [Miyata, Rei and Fujita, Atsushi] (2017) 「機械翻訳向けプリエディットの有効性と多様性の調査」, 『通訳翻訳研究へ誘招待』 18: 54-72.

<온라인 자료>

- 김창준 (2023.2.27.) 「AI인공지능 발전속도」, 『News Value』, 2023년 7월 20일 검색. <http://www.newsvalue.kr/news/articleView.html?idxno=5630>
- 명순영, 최창원, 반진욱 (2023.3.31.) 「기사 쓰고 작곡하고 PPT도…챗GPT 어디까지 써봤니」, 『매일경제』, 2023년 6월 7일 검색. <https://www.mk.co.kr/economy/view/2023/251151>
- 양소희 (2023.7.5.) 「자민당과 5월 만났던 독일 인공지능사 DeepL, 일본 법인 설립」, 『OKENPOST』, 2023년 8월 3일 검색. <https://www.tokenpost.kr/article-138172>

[Abstract]

## **The Practical Study Case of Translation Class Using ChatGPT: Focusing on the Undergraduate Student Translation Assignments**

Seon-hwa Lee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duce preliminary translators who can skillfully use ChatGPT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we note that ChatGPT, unlike machine translation, can be used efficiently for large amounts of translation because it can correct errors with less human intervention using continuous prompts. We designed an experiment and analyzed the results to use it for translation education. In the experiment,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were asked to translate a portion of the novel *Kim Ji-young, Born 1982* into Japanese using ChatGPT on two occasions. ChatGPT made frequent errors in the first task, such as not understanding the instructions, reversing previous instructions, and mistranslating cultural elements. In the second task, however, ChatGPT was assigned a role as a condition for writing prompts, informed of the type of text and expected audience, and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strategies for translation. As a result, the quality of the translations was much higher than in the first task. The students' survey also showed that ChatGPT still has significant potential,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revision through conversation, diversity of information, and ease of operation and storage.

Keywords: ChatGPT, AI (Artificial Intelligence), literary translation, Korean novel, Japanese translation, translation education

주제어: 챗GPT, 인공지능, 문학번역, 한국 소설, 일본어 번역, 번역 교육

이선화(<https://orcid.org/0009-0001-7869-7149>)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snada@hanmail.net

관심 분야: 통번역교육, 동시통역, 기계번역

논문 투고: 2023년 8월 14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